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7호 HYUNBULNEWS.COM 2026년 5월 6일(음력 3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공공주택 실현 위해 불교계 노력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삶을 직접 살폈다. 서울역 맞은편 언덕에 자리한 동자동 쪽방촌에는 800여 명이 0.5~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건물 출입구와 복도, 공용 공간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쪽방을 찾아 주민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정부 관계자, 정치인, 사회 지도층들에게 호소해 공공 임대주택 문제가 빨리 해결돼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기사 2면〉

글=임은호 기자 · 사진 제공=조계종

동국대 건학위, '대학 전법' 중심으로 부상

4월 29일 5주년 기념식 개최
'지미불' 통해 사찰-학생 연결
8125명에 43억2842만원 전달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성공적'
168명서 7738명…4506% 증가
영캠프로 지난해 6700명 수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 이하 건학위)가 자타공인 '대학 전법'의 중심처로 자리매김했다.

건학위는 4월 29일 본관 5층 건학위 회의실에서 최고·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5주년 기념식을 겸해 진행됐으며 5주년 성과보고와 향후 중점계획 발표로 진행됐다.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임을 강조했던 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력으로 2021년 4월 29일 출범한 건학위는 불교 정신의 사회적 확산, 전문 지식인 양성, 인류사회 공헌을 목표로 교육·의료·지역·글로벌의 4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장학사업을 통한 청년불자 양성'이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137회의 전달식을 통해 총 8125명에게 43억2842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4년 시작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 사업도 동국대를 '대학 전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요인이다. 시행 초기 중앙동아리 '동불' 회원이 168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서울·WISE캠퍼스 27개 동아리 7738명(서울 5152명·WISE캠 2440명·DUICA 146명)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회원 수 4506%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9월 개최된 영캠프에서는 서울·WISE캠퍼스 학생 6700명이 오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이라는 자승 스님의 발원을 이어받아 시행한 취업 박람회는 4년 연속 대학 최대 규모로 개최돼 왔다.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 등이 매년 참여하면서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기업체 평판도 3년 연속 톱10 유지로 이어졌다.

건학위 사무처는 "대학생 전법을 통한 청년불자 양성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불교동아리 수와 참여 인원 증가뿐 아니라, 학생들이 영캠프와 연등회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불교 신행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향후 중점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중점 추진 사업 계획들의 키워드는 '청년불자 양성'으로 모아진다. 서울캠퍼스의 핵심 과제는 청년불자 육성을 위한 플랫폼 강화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건학이념 선순환 구조를 통한 장학사업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불교동아리 체계화와 지속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기존에 만들어진 불교동아리들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전법 특임교수를 확대하고 동아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영일 서울캠퍼스 건학위 사무처장은 "영캠프의 경우 기존 장충체육관에서 진행했으나 지난해 참여 희망자가 많아 장소가 협소했던 점을 고려해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할 예정"이라며 "목표는 학교법인 동국대 구성원 1만명 수계"라고 발표했다.

이어 "건학위 출범 5주년,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3주년을 맞은 만큼 재학생 중심의 불교동아리 활동을 졸업생까지 확장하고, 졸업 이후에도 신행과 전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청년대회 조례안 즉각 폐기"

조계종 종교편향특위, 성명 채택
4월 28일 서울시의회와 간담회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두고 종교 편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와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회를 찾아 조례안의 철회와 종교 중립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와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최호정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그동안 종교계 행사 지원은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실정 법률에 맞춰 이뤄져 왔다"며 "특정 종교 행사만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은 즉각 철회 또는 폐기되어야 하며, 관련 특별위원회 역시 해체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대규모 행정·재정 지원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훼손하고, 일반 국민 상식에도 반하며, 종교 간 평화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종교계 시민단체들도 종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세계청년대회(WYD) 사례를 보면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국고 지원 사례가 전무한데, 한국의 경우 과도한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의 지원 예산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6면에 계속〉

유등제로 '조세이 희생자' 기린다

관음종, 5월 9일 낙산묘각사서
대만 잠수사 빅터 씨 추모도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183명의 조선인·일본인 노동자와 이들의 유골을 찾기 위한 잠수 조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대만인 잠수사 빅터 씨를 추모하는 유등제가 열린다.

관음종(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비추는 '2026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오는 5월 9일 오후 1시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봉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등제는 84년 전 조세이탄광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스러져간 183명의 희생자들과 또 그들의 유골을 찾기 위해 자비심으로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대만인 잠수사 故 빅터 씨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등제에는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족회 간부 및 회원들이 참여해 희생자 183명의 이름이 적힌 등을 직접 밝히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예정이다.

관음종은 이번 유등제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잠수 조사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발표되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 초 합의한 유전자 검사의 즉각적인 실무 착수 △추가 유해 발굴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장비와 예산 지원 △희생자들의 온전한 고국 봉환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음종은 "조세이탄광 희생자와 대만 잠수사 빅터 씨를 기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국경과 세월을 넘어 조세이 탄광의 해저 갱도 끝까지 닿기를 기원하고 고통받는 유족들의 손을 맞잡고 한일 양국 정부의 실질적인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유해 수습 지원 모금 계좌
우리은행 (재)대한불교관음종 1006-502-377562

재적사찰 연등달기 캠페인

봉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축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희망의 연등을 밝힙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연등 하나를 밝히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연등 공양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등불이자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서원과 기도를 담아 밝힌 연등공양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져 마음에는 평안이
세상에는 화합의 기운이 두루 퍼지기를 발원합니다.